

홍천사 명부전 석조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연구

주수완*

- I. 머리말
- II. 홍천사 명부전 지장시왕상의 현상
- III. 홍천사 명부전 지장시왕상의 양식사적 비교고찰
- IV. 시왕 권속 조각상의 도상 특징
- V. 맺음말

I. 머리말

홍천사 명부전은 1857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에는 ‘시왕전’의 편액을 달고 있었다. 이후 1894년 중건되면서 ‘명부전’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안에 봉안된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과 그 권속은 1873년에 칠을 새로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제작은 최소한 1873년 보다 올라갈 것이다.¹⁾ 그러나 그 이전에 제작된 이들 존상 일괄이 처음부터 홍천사를 위해 조성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857년에 명부전을 새로 지은 것이라면, 그 이전에는 명부전이 없었다는 뜻이 되고, 이들 존상은 대략 170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마도 홍천사 명부전을 새로 지을 무렵에 그 안에 봉안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이운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또한 이들 존상들은 지장삼존 뿐 아니라 시왕상 및 권속의 일부가 모두 석조로 조성된 것이 특이하다. 아마도 경주불석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통은 석조로 조성하더라도 지장삼존만 석조이고, 다른 존상은 목조 혹은 소조로 모시는 경우가 많아서 홍천사의 사례는 주목된다. 불석으로 시왕상까지 모시는 예는 경주 기림사, 창원 성주사, 부산 장안사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불교미술사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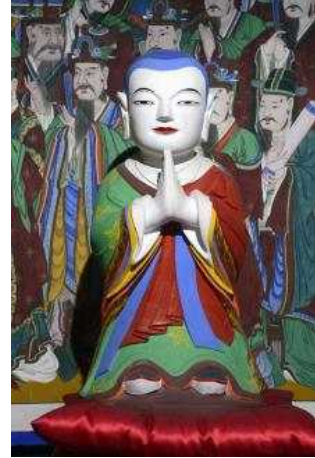
1) 홍천사 명부전 조각상을 비롯한 홍천사 전반의 불교조각에 대해서는 유근자, 「홍천사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강좌미술사』 49, 2017.12 참조.



도1-1. 흥천사 무독귀왕



도1-2. 흥천사 지장보살



도1-1. 흥천사 도명존자

서 좋은 비교가 된다. 특히 시왕상은 자세가 다양하고 팔의 움직임이 크며, 착용한 왕관의 모양이 정밀하기 때문에 석조로 조성하기 까다로운 편임에도 석조로 조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석의 특성 덕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석조각과 구분되는 불석 조각사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불석의 학명은 제올라이트(Zeolites)이며, 규산염 광물로서 화장 암에 비해 부드러운 조각이 가능한 비교적 무른 돌로 알려져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흥천사 명부전의 존상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시왕상들을 비교고찰함으로써 이들 존상들의 연대를 추정해보고, 나아가 지역적 특성을 보이는 요소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석조로 조성된 시왕상들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불석이 경주에서 주로 산출되므로, 산지에서 조각하여 사찰로 이운된 것인지, 아니면 사찰로 원석을 이동한 다음에 조각되는 것인지 등을 추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해남 대흥사에 봉안한 천불상의 경우는 불석 산지에서 조성한 다음에 배로 불상을 이동한 기록이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만약 현지에서 조각된 후 이운되었다면 이들 불석 조각들에는 유사한 양식적 특징이 관찰될 것으로 추측된다.³⁾

2) 제올라이트는 현대에서는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만들기도 한다. 제올라이트는 특히 제습, 곰팡이방지, 탈취, 음이온방출 등의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올라이트의 이러한 과학적 특성이 조선시대에 얼마나 알려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효과를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특히 법당을 가득 메우는 천불전처럼 다수의 불상을 봉안하는 경우 불석을 사용하여 법당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의도했을 수 있다.

3) 해남 대흥사 천불상에 대해서는 송은석, 「해남 대흥사의 조선후기 불상」, 『불교미술사학』 22, 2016.

또한 유사한 양식의 시왕들 사이의 도상적 유사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시왕은 다양한 자세로 앉아있게 되는데, 그 자세들은 각 사찰들마다 유사한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시왕의 양식과 도상의 유사성·차이점의 상관관계에 있어 홍천사 시왕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II. 홍천사 명부전 지장시왕상의 현상

1. 지장보살삼존상

지장삼존상은 명부전의 중심에 봉안된 지장보살 및 무독귀왕·도명존자 삼존으로 이는 모든 명부전에 공통되는 특징이다.[도 1-1~3] 이와 같은 삼존구성은 고려불화에서부터 이미 등장한 도상인데, 다만 무독귀왕은 공수(拱手)한 손 위에 함을 들고 있고, 도명존자는 석장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록사 명부전의 지장삼존상도 이러한 도상이 조선시대에도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반해 홍천사 명부전 지장삼존은 도상에 있어 변화가 보인다.[도 2] 즉, 무독귀왕은 공수를 하고, 도명존자는 합장을 하고 있는 도상인데, 이러한 예는 중국 명대 지장삼존상에서 볼 수 있다. 북경수도박물관의 청동지장삼존상은 반가좌로 기암괴석 위에 앉아있는 지장보살의 아래로 금모사자가 보이고, 좌우로 무독귀왕·도명존자가 협시하고 있는데, 수인의 조합이 홍천사 지장삼존상과 동일하다.[도 3]

고려시대의 지장보살 중에는 두건을 쓴 ‘피모지장’형식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조선 후기 명부전 봉안의 지장보살은 대부분 홍천사 지장보살처럼 민머리를 하고 있다. 얇은 높이 76.5 cm의 홍천사 지장보살은 그런 일반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만, 머리가 유독 크게 표현되었다. 이렇게 머리가 큰 비례는 무독귀왕·도명존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이들 상들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크게 하여 존재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장보살은 유독 동그란 얼굴의 윤곽선이 눈에 띈다. 특히 지장보살의 얼굴이 매우 젊어 보이거나 혹은 아예 어려보이는 듯한 표현이 인상적인데, 이는 명부전 전체 존상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은 머리가 큰 어린아이형 비례와 함께 보다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귀는 컷볼의 끝을 활처럼 휘게하여 마치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옷주름은 단순하면서도 굽고, 규칙적인 듯하지만 간격에 미묘한 변화를 주어 섬세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진다. 손은 왼손의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결가부좌한 허벅지 위에 얹고 오른손은 중지



도2. 신록사 명부전 지장삼존상



도3. 명대 금동지장삼존상

와 약지를 구부려 엄지와 맞닿은 상태로 손바닥을 위로 하여 허벅지 위에 얹었다. 오른손은 손가락 모습이 비교적 복잡한 편인데, 검지와 소지를 외반되게 구부려 허벅지에 달라붙게 표현한 것은 석조작으로서 손가락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중지와 약지를 구부려 세운 것을 표현한 것은 매우 정성을 들인 조각기법임을 알 수 있다.

좌협시인 도명존자는 높이 68.3cm, 우협시인 무독귀왕은 78.7cm 인데, 무독귀왕이 조금 큰 것은 관을 쓰고 있기 때문으로 기본적으로 두 상은 같은 크기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무독귀왕은 오른손을 위로 올린 공수의 자세로 원유관을 착용한 모습이다.⁴⁾ 현재의 채색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지만, 혹 1857년 개채기의 채색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인가 싶기도 하다. 고려 불화의 지장보살도에 등장하는 무독귀왕은 모두 붉은색 상의를 입고 있는데, 이 역시 붉은색 상의를 입고 있다. 얼굴은 지장보살과 마찬가지로 매우 젊은 나이로 표현되었으며 무표정한 분위기 가운데 차분하면서도 인자한 성격을 지닌 인물임을 표현했다. 공수한 양쪽 손으로부터는 3겹으로 소매가 늘어져 있는데, 마치 실제 옷을 겹쳐입은 것처럼 각각의 소매를 정교하게 묘사했다. 안에서부터 연두색, 하늘색, 붉은색으로 채색했다.

도명존자는 특히나 어려보이는 얼굴 표현에 소녀처럼도 보이는 고운 자태로 묘사되었다. 머

4) 이 관을 통천관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천관은 황제의 관으로서 국가적 제사, 관례, 혼례 시 착용하며, 세로줄이 12개인 것이 원칙이고, 9개의 세로줄로 구성된 것을 원유관이라고 한다. 홍천사 명부전 시왕상 뿐 아니라 대부분 시왕상이 착용하고 있는 관은 9줄보다도 적은 것이 일반적이어서 우선 원유관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 관에 대해 양관(梁冠)으로 본 연구도 있다. 조태건, 「17세기 후반 명부전의 지장보살상과 시왕상 연구 : 승호·색란·서응의 작품을 중심으로」(명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11.



도4-1.진광대왕

도4-2.초강대왕

도4-3.송제대왕

도4-4.오관대왕

도4-5.염라대왕



도4-6.변성대왕

도4-7.태산대왕

도4-8.평등대왕

도4-9.도시대왕

도4-10.전륜대왕

리가 큰 비례에 소매자락이 3 겹으로 정교하게 묘사된 것은 무독귀왕과 동일하다. 걸치고 있는 가사는 좌우의 색이 다른데, 아마도 녹색의 장삼을 입고, 그 위에 붉은색 가사를 편단우견으로 걸친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왼쪽 어깨 부분에는 띠매듭이 보이고 있어서 가사를 걸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시왕상

시왕상의 크기는 의자에 앉은 높이가 대략 87.0~93.2cm 내외이다. 현재 시왕상은 소목법에 의해 좌로부터 우로 번갈아가며 순서대로 배치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장삼존 바로 좌측(향우측)에 앉은 시왕인 진광대왕으로부터 우측(향좌측) 가장 끝단의 오도전륜대왕의 순서이다. 현재의 순서가 원래의 순서가 맞다면 대체로 좌우의 상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사한 도상으로 대칭이 되게끔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안쪽 좌우의 제 1 진광대왕[도 4-1]과 제 2 초강대왕[도 4-2]은 공수의 자세로서 서로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바깥쪽 제 3 송제대왕[도 4-3]과 제 4 오관대왕[도 4-4]은 마치 축지인의 수인처럼 한 팔을 뻗어 무릎 위에 얹은 자세인데, 각각 지장보

살삼존상 쪽인 안쪽의 팔을 뻗었고, 다만 오관대왕은 축지인이 아니라 뻗은 왼손에 두루마리 문서를 들고 오른손에는 붓을 들고 있는 점에서 변화를 주었다. 다만 현재 붓은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다. 다시 그 바깥의 제 5 염라대왕[도 4-5]과 제 6 변성대왕[도 4-6]은 각각 정면 불단의 양 끝에 해당하는 왕으로서 다른 상들과 달리 자세가 전혀 다르다. 염라대왕은 공수를 한 점은 진광·초광대왕과 같지만, 머리 위에 큰 경책을 올려놓아 마치 면류관을 착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르다.⁵⁾ 이와 대칭되는 변성대왕은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은 점에서 완전히 다른 자세이다. 제 7 태산대왕[도 4-7]과 제 8 평등대왕[도 4-8]부터는 명부전의 좌우 측벽 앞에 마주보고 배치되었다. 이 두 상은 모두 책을 펼쳐들고 있어 동일한 자세이다. 제 9 도시대왕[도 4-9]과 제 10 오도전륜대왕[도 4-10]은 각각 좌우 끝에 위치하는 시왕으로서 모두 오른발을 올린 반가좌의 자세로 앉아 왼손은 반가한 발목 위에 올리고, 오른손은 반가한 무릎 위에 올리거나 수염을 쓰다듬고 있어 변화를 주었다.

이처럼 흥천사 명부전 시왕상은 소목법으로 좌우 번갈아가며 대칭되게 유사한 자세로 조성하였고, 다만 좌우 각각의 중앙에 해당하는 상들만 예외다. <시왕개체원문>은 다음과 같다.

伏以願滅四生六途法界有情多劫生來諸業障我今○○○廣大募緣成就佛事 奉安于漢東三角山興天寺以○○○施者受者生者亡者願諸業障悉消除世世常行菩薩道願共法界諸衆生 同入彌陀大願海

엎드려 바라건대, 네 종류의 생명⁶⁾으로 태어나 육도에 윤회하는 법계 유정이 모두 겁생에 이어 왔던 모든 업장을 없애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며 널리 큰 인연들을 모아 불사를 성취하여 한양 동쪽 삼각산 흥천사에 ○○○을 봉안하고자 합니다. 시주한 자, 시주받은 자, 태어난 자, 죽은 자 모두 업장을 다 소멸하고 세세생생 항상 보살도를 행하여 법계의 모든 중생이 함께 아미타

5) 이 경책은 대부분의 경우 금강경으로 표기되어 있어 염라대왕과 금강경은 일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염라대왕이 아닌 다른 왕이 경전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봉안을 제 위치에 하지 않은 것인지, 원래부터 다른 왕이 경전을 이고 있는 것으로 조성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흥천사 명부전의 시왕도만 하더라도 면류관을 착용한 것처럼 보이는 도상은 오관대왕이며, 염라대왕은 원유관을 착용하고 있다. 명부신앙과 금강경의 관계는 불교경전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염라대왕과 금강경이 연관되는 것은 주로 민간설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경전을 올린 왕이 염라대왕이라는 명확한 도상적 전거는 찾기 어렵다. 다만, 중국 당대 지장시왕도 등에 의하면 염라대왕만이 면류관을 착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유관을 착용하고 있는 조선시대 시왕 조각상 중에서 경전을 올려 마치 면류관처럼 보이는 도상이 염라대왕이므로, 어쩌면 중국에서 염라대왕이 면류관을 착용하게 된 것과조선에서 염라대왕이 경전을 머리에 얹게 된 것은 상호간에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6) 네 종류의 생명은 습생, 난생, 태생, 화생의 네 가지를 말한다.

불 대원의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證明 靑峰應策
寬河海禪
鏡山處均
幻船道岸
幻隱允定
龍隱快雲
會主 應化元淳
誦呪 春潭道憲
龍海修晶
比丘 在謙
金魚 比丘 壯典
比丘 奉炯
比丘 釋云
比丘 善益
改彩片手 在根
比丘 釋祚
都監 秀山富潤
別座 靈隱寶泉
鐘頭 比丘 在學
比丘 善旭
淨桶 比丘 敏初
茶角 沙彌 頓法
都化主 漢鏡學能
施主秩
乾命 辛未生 金氏
坤命 甲辰生 金氏
乾命 甲申生 張淳奎
同治十貳年癸酉五月日

증명 청봉응책
관하해선
경산치균
환선도안
환은윤정
용은쾌운
회주 응화원순
송주 춘담도헌
용해수정
비구 재겸
금어 비구 장전
비구 봉형
비구 석운
비구 선익
개채편수 재근
비구 석조
도감 수산부윤
별좌 영은보천
종두 비구 재학
비구 선욱
정통 비구 敏初
다각 사미 돈법
도화주 한경학능
시주질
건명 신미생 김씨
곤명 갑진생 김씨
건명 갑신생 장순규
동치 12년(1873) 계유년 5월7)



도5. 진주 청곡사 업경전 지장시왕상 일괄

Ⅲ. 홍천사 명부전 지장시왕상의 양식사적 비교고찰

홍천사 명부전 지장삼존 및 시왕상은 크기는 작지만 동글동글하고 단단한 조형성을 지닌 특징이 있으며, 옛된 표정의 얼굴이 인상적이다. 조선시대 시왕상의 조형성은 큰 키에 날씬한 신체를 지닌 유형과 이처럼 작고 단단한 유형의 시왕으로 크게 나뉘볼 수 있는데, 홍천사상과 유사한 양식을 보이는 조각상으로는 예를 들어 진주 청곡사 업경전 봉안의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을 들 수 있다.[도 5] 보물 제 1689 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들 존상들은 상의 규모 자체는 홍천사상에 비해 큰 상들이지만, 비례적으로 머리가 신체에 비해 크고 동그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옛된 표정을 짓고 있는 점도 홍천사상들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 상들은 지장보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1657년에 조성된 것이어서 이러한 유형으로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이므로 참고가 된다.⁸⁾

청곡사상의 경우, 지장보살의 도상은 홍천사상과 비교해 오른손을 어깨높이로 들고 있으며, 두 손 모두 손가락을 구부려 법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는 목조이기 때문에 보다 섬세한 자세와 손가락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협시인 무독귀왕은 공수한 손이 보이지 않고

7) 이 번역문은 순천대학교 이종수 교수의 번역을 인용한 것이다.

8) 현재까지 알려진 지장삼존과 시왕상 일괄조성의 가장 이른 예는 목포 달성사 명부전으로 임란 이전인 1565년에 향엄(香嚴)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 조각상은 지장보살이 반가좌를 하고 있어 조선초에 조성된 강진 무위사 아미타삼존의 우협시 지장보살과 같은 도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상적으로 17세기에 등장하는 시왕상의 도상과 비교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명부전 도상은 이보다 앞서 이미 완성된 형식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큰 변화없이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도6. 영천 영지사 명부전 지장시왕상

흰색 천으로 덮여 있으며 그 위에 함이 놓여 있어 단순히 공수한 모습으로 표현된 홍천사 무독귀왕과 차이가 있다. 도명존자의 경우도 마치 지장보살처럼 석장을 들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홍천사상이 합장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시왕상의 경우는 일부 시왕의 경우 소목법에 의해 좌우 대칭적으로 봉안된 시왕상들 간에 도상적 유사성이 보이기도 하지만, 홍천사상처럼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우선 지장삼존 가장 가까이에 봉안된 두 상은 모두 공수를 한 상태로 모은 손에 홀을 들고 있으며, 가장 바깥쪽의 두 상은 반가좌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천사상과 같다. 또한 다섯 구씩 좌우로 놓인 상들 중 각각의 사이에 해당하는 세 구씩의 상들은 도상적으로 모두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대칭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시왕 중에서 풍성한 하얀 수염을 휘날리는 듯한 노인의 모습을 한 시왕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곡사상은 오로지 젊은 형상의 시왕만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하겠다.

시왕의 자세로는 반가좌한 시왕이 제 9·10 대왕 뿐 아니라 제 6 대왕도 반가좌를 한 것이 눈에 띄며, 제 5 염라대왕이 머리에 경책을 엮고 있는 것은 홍천사상과 동일하다. 시왕이 착용한 원유관은 홍천사상에 비해 청곡사상의 것이 더 높고 정교하며 원유관 외에 깃털이 달린 관을 착용한 시왕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홍천사상이 대체로 유사한 형식을 보이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를 준 것과 달리 각각의 상에 보다 다양한 형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곡사 명부전 존상들이 홍천사 명부전 존상들의 일종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홍천사상처럼 석조로 조성된 지장삼존 및 시왕상의 사례로는 영천 영지사 명부전 존상을 들 수 있다.[도 6] 이들 상들도 홍천사상처럼 경주불석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상적 구성이 대체로 홍천사상과 유사한 점이 많다. 지장삼존의 협시인 무독귀왕과 도명존자의 수인도 유사하다. 다만 무독귀왕의 공수한 손은 노출되지 않고 흰 천에 덮여 있는데, 혹 이 위에 함이 없었었는지도 모른다. 도명존자는 합장한 수인과 붉은 색 가사를 편단우견으로 걸치고 있는 모습이 동일하다. 지장보살의 수인은 손가락을 짧게 표현하여 석조로 정교한 손가락을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도7. 서울 청룡사 명부전 지장시왕상 일괄

시왕상의 도상은 공수를 한 상이 4 구, 반가좌로 앉아 수염을 쓰다듬는 상이 2 구, 문서와 붓을 든 상이 1 구, 책을 펼쳐든 상이 1 구, 양손을 무릎 위에 얹은 상 1 구, 한 손만 무릎에 얹은 상 1 구로서 현재의 상의 배치는 흥천사상과 다르지만 각각의 도상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며, 책을 펼쳐든 상의 흰 수염을 표현하는 방식도 닮았다. 다만 흥천사상은 얼굴이 전반적으로 동글동글한 반면에 영지사상들은 턱이 각지게 표현되어 서로 다른 인상을 준다.

석조시왕상으로서 또 다른 예인 서울 청룡사 석조시왕상은 보물 1821 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660년 조각승 승일(勝日)에 의해 조성되어 경북 경산 동학산의 용밀사에 봉안된 것이다.[도 7g) 지장삼존의 경우 무독귀왕이 공수가 아닌 합장을 하고 있어 도명존자와 같은 수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지장보살의 수인도 축지인을 기본으로 하여 왼손 위에 보주를 얹고 있는 도상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머리가 다소 큰 비례이기는 하지만, 흥천사상처럼 크지는 않다. 시왕의 도상은 여섯 구가 모두 손을 모으고 홀을 들고 있으며, 반가좌를 한 상은 제 10 오도전륜대왕 1 구 뿐이다. 또한 나머지 도상으로는 두루마리를 양손으로 펼쳐든 시왕이 2 구, 양손을 무릎에 올린 상이 1 구로서 도상의 구성면에서 보면 매우 단순한 조합을 보인다. 관의 형식은 모두 원유관에 가까운 형식인데 다만 현재는 제 3 대왕의 위치에 있는 상이 머리 위에 경책을 올리고 있어 주목된다. 보통은 제 5 염라대왕이 이처럼 경책을 올린 원유관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이 염라대왕의 위치에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 더불어 시왕의 수염 표현을 통해 모두 젊은 형상의 시왕이며 흰 수염을 휘날리는 노인 형상의 시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유사한 시기인 1684년에 조성된 부산 장안사 명부전 석조 지장삼존 및 시왕상과도 비교된다.[도 8]10) 이 상들은 응진전의 불석으로 만든 석가삼세불상과 함께 조각승 승호(勝浩, 勝湖)

9) 서울 청룡사 명부전 시왕상에 대해서는 문명대, 「청룡사 명부전 석지장시왕상 연구」, 『강좌미술사』 34, 2010 참조. 한편 조각승 승일에 대해서는 이분희, 「조각승 승일과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1, 2006 및 송은석, 「조각승 승일과 승일파의 造像 활동」, 『한국선학』 26, 2010.

10) 기장 장안사에 대해서는 이희정,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삼세불좌상과 조선후기 석조불상」,



도8. 부산 장안사 명부전 지장시왕상

가 조성한 것이다.¹¹⁾ 승호는 1640년 청허(淸虛)가 현재 거창 심우사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¹²⁾ 조성할 때 참여한 것이 가장 이른 기록이며, 이후에는 모두 석조 분야에서 활약했다. 1655년 도우(道祐)와 함께 조성한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조성에 참여한 이래 수화승으로서 1678년 청도 덕사 영산전 석조여래삼존과 심육나한상 및 명부전 석조지장삼존과 시왕상, 1681년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시왕상, 1685년 청송 대전사 석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을 제작하였으므로, 석조 전문 조각승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승호가 조성한 장안사 명부전 지장상은 개금이 되어 있지 않아 불석이 자연스럽게 노출된 상태이며, 수인은 흥천사 지장상과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손가락을 구부려 맞댄 오른손의 표현은 손가락을 모두 구부려 주먹처럼 쥐고 있기 때문에 흥천사상처럼 검지와 소지를 편 것과 구분된다. 무독귀왕과 도명존자의 수인은 흥천사상과 유사하지만 무독귀왕이 공수한 손으로 홀을 들고 있는 것이 다르다.

시왕상은 흥천사상처럼 좌우가 비교적 대칭되는 다양한 도상으로 묘사되었다. 공수를 한 상이 좌우에 하나씩 보이며, 반가좌 및 한 발만 족좌에 올려 높이 세우고 수염을 쓰다듬는 상이 또한 서로 대응된다. 두 손을 무릎에 얹어 한 손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한 시왕이 좌우에 각각 보이며, 경책을 들거나 혹은 문서에 무엇을 기입하려는 상이 서로 좌우에서 대응된다. 이와 함께 두 손



도9. 대구 달성군 남지장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승호, 1659년

『문물연구』 14, 2008 및 서치상, 「기장 장안사 대웅전의 조영기문과 건축형식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9-2, 2010 참조.

11) 조각승 승호에 대해서는 송은석, 「조선후기 불석제 불상과 조각승 승호·경옥」, 『국학연구』 34, 2017 ; 최선일,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의 활동과 불상연구」, 『선문화연구』 18, 2010 ; 조태건, 앞의 논문(2011) ; 고승희, 「남지장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조성발원문을 통해본 17세기 조각승 승호 연구」, 『강좌미술사』 51호 참조.

12) 이 아미타상의 원래 봉안처는 덕유산 연수사였다.



도10. 서울 봉국사 명부전 지장시왕상

을 무릎에 엮고 한 손에 홀을 든 상과 한 손을 등 뒤로 돌린 상은 서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양쪽에 배치되어 변화를 주고 있다. 장안사상에서도 경책을 머리에 얹은 시왕이 염라대왕의 자리에 배치되었다.

장안사 명부전의 지장시왕상은 양식적으로는 불석 특유의 괴체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홍천사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홍천사상은 보다 얼굴이 크고, 신체가 짧은 단단한 느낌이라는 점과 전체적으로 더 날카로운 인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도상 구성면에서는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장안사 존상들은 홍천사상들과 양식적으로 차이가 많아 조각승 승호와의 연관성을 생각하기 어렵지만, 근래 대구 달성군 남지장사에서 지장보살 단독으로 전해지는 작품의 조사를 통해 승호의 1659년 작업이 밝혀졌다.[도 9]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1680년대작보다 20년가량 이른 시기의 작품인 셈인데, 그 양식이 홍천사 존상들의 옛된 모습과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홍천사상이 승호의 이른 시기의 작품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그런 경우 그 제작연대를 1650년대로 보다 좁혀 추정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¹³⁾

한편 홍천사와 마찬가지로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 원찰이었던 봉국사의 명부전에도 석조지장시왕상이 봉안되어 있다.[도 10] 이 상들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17세기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상적으로 지장삼존은 오른손을 바닥을 향하여 내리고, 왼손은 손가락을 맞대고 있어 좌우 수인이 홍천사상과 반대인 점이 다르지만, 구성은 같다. 무독귀왕 및 도명존자의 도상 역시 각각 공수와 합장으로 동일하다. 시왕의 구성은 제 1~4 대왕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수인데, 좌측의 1,3 대왕은 홀을 들고, 2,4 대왕은 홀을 들지 않았다. 제 5~8 대왕은 기본적으로 두 손을 앞으로 뻗어 무릎에 얹은 형식인데, 제 5 염라대왕이 경책을 원유관 위에 얹고 양손에 경전을 들고 있어 차별화된다. 제 9, 10 대왕은 다른 경우와 달리 반가좌를 취한 예는 없고, 모두 족

13) 고승희, 앞의 글 참조. 2018년 홍천사 학술대회에서 남지장사 지장상과 홍천사 지장상과의 양식적 유사성을 지적하고 비교고찰을 제안해주신 김창균 선생님과 고승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도11. 경주 기림사 명부전 지장시왕상 일괄

좌 위에 한 발을 올린 형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고 있는 모습이 대칭적이다. 봉국사상은 좌우대칭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지만 대체로 유사한 도상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하얀 수염을 지닌 노인형의 시왕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현양식적으로는 홍천사상과 유사한 면이 많이 보인다. 머리가 크고 몸이 짧게 표현된 점, 얼굴이 보여주는 날카로운 인상 등에서 서로 유사한 조형성을 보인다. 아마도 홍천사상보다 연대가 다소 내려오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된다.

같은 불석으로 제작된 상이지만 기림사 명부전의 시왕상은 불석의 원산지인 경주에서 제작된 상이기 때문인지 조형양식이 완전히 다르다.[도 11]¹⁴⁾ 장대한 신체에 인간의 실제 비례에 가까운 흰칠한 모습은 지금까지 고찰한 석조 시왕상에 비해 더 정교하고 자세 면에서 보다 자유로운 느낌을 준다. 특히 소매 부분에서 3 겹으로 겹겹이 옷을 겹쳐 입은 모습을 묘사한 것은 홍천사상의 특징과 유사하다. 도상적으로 검토해보면 우선 눈에 띠는 것은 반가좌한 시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경책을 관 위에 얹은 염라대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외에 공수, 혹은 공수하고 홀을 쥔 수인, 또는 한 손으로 홀을 쥐거나 경책을 보는 자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도상 자체는 홍천사상과 같이 다양한 조합을 보이는 시왕 계통하고는 차이가 많다. 혹자는 기림사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승호의 작품으로 보기도 하지만, 앞서 살펴본 작품들과는 양식적으로 차이가 많아 17세기 승호의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마도 기림사상의 자세, 특히 팔이 신체로부터 떨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이 경주불석 산지에 위치한 사찰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추정해볼 수 있다. 이곳에서 제작된 상들은 굳이 장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동에 대

14) 앞서 언급한 대흥사 천불전에 봉안된 천불상은 기림사에서 제작하여 이운해간 것이었다.

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경상도라고 하더라도 일정 거리를 이동해야하고, 지금처럼 도로와 교통사정이 발전하기 전에는 운반 중에 파손될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상봉안처에 불석의 원석을 옮겨가고 조각가들이 봉안처에서 조각을 직접 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조각하기 전의 원석의 크기가 더 클 것이므로 역시 대형의 원석을 이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따라서 원석에서 조각을 하면서 돌을 덜어내면 크기가 줄어든 작은 상만 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조각가가 이동하게 되면 별도의 작업장을 만들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불석 산지에서 제작하여 이동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¹⁵⁾

이러한 사정으로 나한상, 천불 같은 작은 불상은 불석으로 많이 만들어졌지만, 시왕과 같이 어느 정도 크기도 있고, 더구나 10 개 이상의 존상을 불석으로 만드는 일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분포 범위도 나한이나 천불은 전국적으로 나타나지만, 시왕상의 경우는 대체로 경상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청룡사, 흥천사처럼 후대에 이동된 경우가 많아 현재는 분포 범위를 경상도에 한정할 수 없으나, 추후 원위치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밝혀진다면 그 정확한 분포범위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IV. 시왕 권속 조각상의 도상 특징

명부전 조상을 구성하는 기타의 존상들은 시왕을 보좌하는 2 구의 귀왕, 2 구의 판관, 2 구의 사자, 2 구의 역사, 그리고 6 구의 동자상이다. 귀왕상은 높이 67.5 cm와 77.0 cm, 판관은 72.0 cm와 76.5 cm, 사자는 93.5 cm와 98.0 cm, 2 구의 역사는 135 cm와 138.0 cm이며, 동자상은 37.5~56.0 cm 내외이다.[도 12~16]¹⁶⁾

귀왕은 모두 윗면이 귀면으로 처리된 관을 착용하고 있다. 윗면 바로 아래로 보관의 상단에는 마치 짧고 흰 술 장식이 표현된 것 같지만, 이것은 귀면의 이빨을 표현한 것이어서 흥미롭다. 좌

15) 조선후기 경주불석제 불상의 등장에 있어 경상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 지역 불석제 불상의 등장과 유행」, 『불교미술사학』 14, 2012 참조. 한편 불석 원석을 봉안처에 옮겨 현지 조각가들이 조각한 사례로는 여수 흥국사 불조전의 과거7불과 53불상을 들 수 있다. 송은석, 앞의 논문(2017), p.145.

16) 조선시대 명부전을 구성하는 존상들의 도상에 대해서는 김정희, 「조선시대 명부신앙과 명부전 도상 연구」, 『미술사학보』 4, 1991.



도12-1.귀왕(I)

도12-2.귀왕(II)

도13-1.귀왕(I)

도13-2.귀왕(II)

도14-1.사자(I)



도14-2.사자(II)

도15-1.역사(I)

도15-2.역사(II)

도16-1.동자(I)

도16-2.동자(II)



도16-3.동자(III)

도16-4.동자(IV)

도16-5.동자(V)

도16-6.동자(VI)

우 끝에는 송곳니가 날카롭게 드러나 있다.[도 17] 손은 공수한 자세이지만 두 손은 흰 천으로 덮여 보이지 않는다. 옷자락이나 관대 등은 대체로 단순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이 두 손을 가린 천과 소맷자락이 겹쳐진 모습은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게 깎았다. 또한 한 상은 소맷자락이 물결치며 펼쳐지듯이 흘러내리고, 다른 한쪽은 소매 사이로 지그재그형태로 옷주름이 흘러내리고 있어 세심한 변화를 주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관관은 복두를 쓰고 공수의 자세를 하고 있는데, 역시 두 손은 흰 천으로 덮여있다. 옷주름의



도17. 시왕상 보관 윗면 세부

표현은 두 상이 거의 동일하며, 여기서도 역시 소매가 겹겹이 겹쳐진 모습을 섬세하게 조각했다. 얼굴표현에 있어 한 상의 안면 턱을 다른 상에 비해 더 가늘게 조각한 것을 제외하면 두 상은 매우 흡사하다. 특히 관의 형식을 제외하면 귀왕과 관관은 거의 유사한 형식일 수도 있는데, 두 존상의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있어 귀왕은 더 당당하고 머리를 크게, 관관은 다소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작게 하여 귀왕이 위계가

가 더 높은 존재인 것을 차별화하여 강조한 것이 주목된다.

소조로 조성된 두 사자는 모두 삼지창을 들고 있는데, 한 구는 창 아래에 번이 달려있고, 한 구는 용머리가 도끼날을 입에 물고 있는 형태로 표현하여 변화를 주었다.¹⁷⁾ 두 상 모두 두건을 쓰고 장화를 신었다. 또한 창을 든 손의 반대편 손은 옷자락에 가려 보이지 않게 처리한 것도 공통적이다. 날렵한 인상을 주며, 금방이라도 명을 받들려는 듯 고개를 약간 측면으로 틀어 어딘가를 응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소조로 조성된 역사상은 모두 상체를 드러낸 금강역사의 모습이지만, 한 구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다.¹⁸⁾ 이 투구를 쓴 역사는 어깨에 휘날리는 천의자락을 두르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천의에 붉은 색 돌기가 달려있고, 그 사이로 청색과 녹색의 돌기가 번갈아가며 표현된 점이다. 왜 천의자락에 이러한 돌기가 술 장식처럼 달렸는지 알 수 없으나 매우 특이한 사례로 보인다. 손에는 날이 넓고 휘어진 도(刀)를 들고 있다. 허리에는 흰색의 귀면, 혹은 동물의 얼굴 모양이 달린 털가죽 장식이 달린 허리띠를 매고 있으며, 그 아래로 바지는 무릎에서 동여매어 종아리 아래 부분이 살짝 드러나 보인다. 신발이 없이 맨발로 서있으며, 그 위로 어깨에서 흘러내린 옷자락이 휘 감고 있다. 다른 한구는 투구가 아닌 상투관을 착용했으며 이는 보다 전통적인 금강역사의 머리 모양에 가깝다. 들고 있는 무기는 몽둥이처럼 보이는데, 전통적인 금강저의 모습은 아니지만, 아마도 금강저를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판알을 쥔 것 같기도 하고, 아령 같기도 한 모습이 매우 독특하다. 다른 한손으로는 어깨에 두른 천의자락을 잡고 있다. 동물 털가죽이 늘어진 허리띠를 매고, 짧은 바지를 입었는데 무릎에서 한번 매듭진 것은 다른 역사상과 동일하다. 다만

17) 이러한 무기의 공식적인 명칭은 월부(鐵斧)이다.

18) 이처럼 상체에 천의를 걸친 형식이 17세기 초·중반에 주로 등장한다면, 갑옷을 입은 형식은 17세기 후반에 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조태건, 앞의 논문(2011), p.9.

발목에 발찌를 차고 있는 점은 더 추가된 부분이다. 흥천사 명부전의 다른 존상들이 모두 옛되고 어려보이는 반면, 이 두 역사상은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동자상은 6 구인데, 원래 더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남아있는 예로만 보면 동녀가 없이 동자로만 구성된 사례이다. 3 구의 석조 외에 나머지 3 구는 소조상이어서 아마도 원 봉안처에서 이운해올 때 이미 상당수의 동자·동녀가 유실된 상태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동자상의 도상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학을 들고 있는 동자이다. 어린 소년의 모습이지만 매우 당당한 자세로 학을 들고 있는 모습은 위엄이 있으며, 두 발은 발버둥치고 있는 것 같지만, 긴 목과 머리를 동자의 몸에 밀착시킨 자세는 마치 애완동물이 품에 안긴 듯이 푸근해 보인다. 전반적으로 'T'자형으로 표현된 학의 몸은 틀에 맞춘 듯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감각적으로 표현되었다.

두 손을 모으고 흰 천을 덮은 동자는 앞서의 학을 든 동자와 같은 양식으로 생각된다. 고개를 살짝 든 자세는 관관이나 시왕의 아래에 서서 재판을 돕는 시동으로서의 모습을 충실하게 묘사했다. 녹색의 상의를 입은 동자는 윗부분은 없어졌지만, 아래 부분에 남아있는 줄기형태로 볼 때 아마도 커다란 연잎을 들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도상은 그 외 거북이를 든 동자와 연꽃을 들고 있는 동자와 함께 이들 동자들이 물가 혹은 연못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구는 두 손으로 어떤 그릇처럼 생긴 것을 받들어 어깨 높이로 들고 있는데, 다른 사례에서 보면 그 위 구멍에는 아마도 연봉이 꽂혀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V. 맺음말

흥천사 명부전 존상들은 언뜻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이번 고찰을 통해 이들 존상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 아마도 경주불석으로 추정되는 석조로 조성된 상이기 때문에 손의 자세 측면에서는 목조각에 비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불석으로 만든 불상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상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었던 점도 참고가 되어야 할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석을 굳이 사용한 이유는 불석이 지니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중요시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불석으로 천불상이나 나한상을 조성한 사례는 많지만, 이처럼 시왕 일괄을 모두 불석으로 조성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흥천사 시왕상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불석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목조각에서 지장보살이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든 수인을 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마치 축지인처럼 모두 무릎에 올리고 있다. 목조각상의 지장보살이 대부분 오른

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손가락을 맞댄 설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석조 지장상들이 손을 내려 다리에 얹은 것은 석조만의 제한적 특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홍천사상은 최소한 이번 연구에서 살펴본 불석제 지장상과 비교해 볼 때 손의 위치가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사례에서는 오른손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고, 왼손 손바닥이 위로 향해서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데, 홍천사상은 오른손 손바닥이 위로 향하여 손가락을 맞대고 있으며, 왼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고 있어 특이하다. 이런 경우라면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어깨 높이로 들고 있는 도상을 석조로 표현하면서 손을 내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지장보살이 명부전의 본존이 아니라, 아미타불과 같은 다른 불상의 협시보살로 봉안되었다가 명부전 본존으로 옮겨왔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첫째, 홍천사 지장보살상은 협시, 특히 좌협시인 도명존자상의 얼굴과 비교해 조형성이 매우 유사하여 원래부터 삼존구성으로 조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지장보살이 다른 아미타불상의 협시로 조성되는 경우 좌협시가 아니라 우협시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처럼 손이 바뀔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부전 본존으로 조성하면서도 손의 좌우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독귀왕이 공수하고, 도명존자가 합장한 삼존 도상도 석조로 조성된 지장삼존상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목조의 경우는 무독귀왕이 함을 들고, 지장보살이 석장을 든 경우도 적지 않지만, 아마도 석조의 특성상 공수와 합장의 수인이 제작하기에 가장 용이하였기 때문에 석조에서는 주로 이 도상이 유행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홍천사 명부전 도상이 지니는 또하나의 특징은 상의를 세 겹으로 겹쳐 입은 모습을 유독 정성들여 조각한 점이다. 때문에 소매가 세겹으로 겹쳐 있는데, 각각의 소매를 매우 정교하게 새겨 넣었다.

시왕상 도상에 있어서는 비교적 다양한 자세를 끌고루 포함시킨 것도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공수한 모습의 도상이 유독 많이 포함되거나 혹은 반가좌한 도상이 포함되지 않거나, 아니면 흰 수염을 지닌 시왕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 등등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홍천사상의 경우는 다양한 도상이 등장하고, 그것도 소목법에 의해 좌우로 번갈아 배치된 시왕상들간에 일종의 대칭구조가 되게 조성한 것도 흥미롭다. 이러한 대칭성은 다른 석조시왕상에서도 볼 수 있으나, 배치가 다르게 되어 동일한 존상들이 같은 측면에 놓인다거나 하여 그 대칭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홍천사상은 현재의 배치 상태에서 그러한 대칭성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가장 모범적인 배치사례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불석으로 조성한 천불이나 나한상은 사실상 양식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발원문이나 조성기가 없으면 정확한 연대판정이 어렵다. 시왕상도 불석으로 조성된 경우는 한편으로는 각각의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목조불상에서와 같은 작가마다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아 연대판정이 어렵기도 하다. 아마도 불석으로 조성한 다음 이동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 형태를 단순

화하는 독특한 방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일 것이고, 나아가 경주불석 산지에서 활동한 조각가들이 대체로 유사한 양식을 구사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천사상과 비견될만한 석조시왕상들 중에서 연대가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17 세기의 작품이고, 나머지 연대가 확인되지 않은 작품들의 양식들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홍천사 명부전 시왕상 역시 17 세기의 작품으로 편년되어 왔으며, 필자도 이에 이의가 없다.¹⁹⁾

다만 근래 대구 달성군 남지장사의 석조지장보살좌상이 조각승 승호의 1659 년작임이 밝혀짐에 따라 이와 비교적 유사한 양식을 보이는 홍천사 명부전 존상들 역시 승호의 이른 시기에 제작된 1650 년대 작품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았다. 그의 더 이른 시기 작품인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의 양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송림사상은 승호 단독의 조성이 아니고, 그의 법명도 도우 다음에 등장하여 아마도 조각승 도우의 양식이 더 많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홍천사상이나 남지장사상이 승호 비구의 양식이 드러난 가장 이른 시기의 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주제어(Key Words)

명부전(judgement hall), 지장보살(Kṣitigarbha), 불석(Zeolites), 시왕(ten kings of Hell), 도상배열(iconographic arrangement), 지옥도상(iconography of Naraka)

19) 17세기는 또한 명부전 시왕상 조성이 유행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임진과 병자의 양란, 소빙기라는 기상이변, 기근과 가뭄 등의 천연재해가 이 시기에 유행했기 때문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많은 사상자가 속출해서 어떤 신앙이 필요했다면 약사신앙이나 아미타신앙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시왕신앙이 등장한 이유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할 듯하다. 가뭄, 기근, 기상이변 등으로 사회가 피폐한 상태였다면 시왕신앙에 의해 망자를 매주 추도하거나 때에 맞춰 재를 올리기가 오히려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신앙이 등장한 것은 반대로 경제적인 부가 양반층 뿐 아니라 절을 찾는 일반 평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나아가 주자가례에 의한 제사는 지내지 못하더라도 격식있는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는 수요층이 증가했던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격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승희, 「남지장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조성발원문을 통해본 17세기 조각승 승호 연구」, 『강좌미술사』 51호, 한국미술사연구소, 2018.
- 김정희, 「조선시대 명부신앙과 명부전 도상 연구」, 『미술사학보』 4, 미술사학연구회, 1991.
- 문명대, 「청룡사 명부전 석지장시왕상 연구」, 『강좌미술사』 34, 한국미술사연구소, 2010.
- 서치상, 「기장 장안사 대웅전의 조영기문과 건축형식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9-2, 한국건축역사학회, 2010.
- 송은석, 「조각승 勝日과 勝日派의 造像 활동」, 『한국선학』 26, 한국선학회, 2010.
- _____, 「조선후기 불석제 불상과 조각승 승호 · 경옥」,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2017.
- _____, 「해남 대흥사의 조선후기 불상」, 『불교미술사학』 22, 불교미술사학회, 2016.
- 유근자, 「홍천사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강좌미술사』 49, 한국미술사연구소, 2017.12.
- 이분희, 「조각승 승일과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1, 한국미술사연구소, 2006.
- 이희정,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삼세불좌상과 조선후기 석조불상」, 『문물연구』 14, 동아문화재단, 2008.
- _____, 「조선후기 경상도 지역 불석제 불상의 등장과 유행」, 『불교미술사학』 14, 불교미술사학회, 2012.
- 조태진, 「17세기 후반 명부전의 지장보살상과 시왕상 연구 : 승호 · 색란 · 서응의 작품을 중심으로」,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최선일,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의 활동과 불상연구」, 『선문화연구』 18,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0.

홍천사 명부전 석조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연구

주수완

홍천사 명부전 존상들은 모두 불석으로 조성된 상으로서 이러한 사례는 불석의 산지인 경주의 기림사와 서울의 봉국사, 청룡사, 그리고 영천 영지사, 진주 청곡사(1660년), 부산 장안사(1684년), 창원 성주사(1681년) 명부전 존상들이 알려져 있지만,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천불상과 같은 다량이며 소품인 불상들에 주로 사용되었던 불석을 이보다 규모가 크고 모양이 다양하며 복잡한 조각상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석 명부존상들을 독특한 유형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청룡사 명부전 존상은 승일(勝日), 장안사, 성주사 명부전 존상은 승호(勝浩 혹은 勝湖)가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승호는 이 밖에도 다양한 불석 조각을 남기고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그의 조각양식과 홍천사 명부전 조각양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홍천사 명부전 존상은 매우 옛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장안사·성주사 명부전 존상의 근엄한 인상과는 다르다. 그러나 최근 대구 달성군 남지장사에 단독으로 전하고 있는 석조지장보살좌상이 1659년 승호의 작품으로 밝혀졌는데, 그의 1680년대 작품들과는 다르게 이보다 20여년 앞서 조성한 이 상은 마치 홍천사 명부전 존상처럼 옛된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홍천사 명부전상이 승호의 이른 시기의 작품일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그 연대로 1650년대로 조금 더 좁혀볼 수 있을 듯하다.

홍천사 명부전 존상은 지장보살의 경우 일반적인 지장보살상의 수인과 비교했을 때 좌우 손이 바뀐 형태인 것이 특이한데, 비록 남지장사의 지장상이 손에 지물을 들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홍천사 지장상과 같은 수인인 점도 참고가 된다. 그러나 오른손의 손가락을 길게 조성하여 다리 위에 늘어지듯이 강조하여 표현한 것은 홍천사 지장보살상만의 특징이다.

협시인 무독귀왕 및 도명존자, 그리고 시왕상에서는 상의를 세 겹으로 겹쳐 입은 모습을 유독 정성들여 조각한 점 역시 홍천사상의 특징이다. 더불어 시왕상 도상에 있어서는 비교적 다양한 자세를 골고루 포함시킨 것도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홍천사 시왕상은 공수(拱手)한 자세, 반가좌의 자세, 흰 수염을 기른 시왕 등 그 모습이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러한 다양한 존상들을 지장삼존상의 좌우로 대칭되게 배열하려고 했던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 특이하다.

이처럼 홍천사상은 여러 도상이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좌우 대칭적으로 배열된다는 점에서 가장 모범적인 조선시대 명부전 존상 배치의 한 예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Statues of Kṣitigarbha Triad and Ten Kings of Hell in Judgement Hall of Heungcheonsa-temple

Joo, Soowan *

The all statues of Judgement hall in Heungcheonsa-temple is made by Zeolite stone which called as Bulsuk(沸石). Even these case are also found in some temples as Girimsa of Kyungju where the Zeolite stone is produced, Bongguksa and Chungryongsa temple of Seoul, Youngjisa temple of Youngchun, Chunggoksa temple of Jinju(1660), Jangahnsa temple of Busan(1684), Seongjusa temple of Changwon(1681), but it is not very many. Zeolite stone was broadly used for the Thousand Buddha statues which were small and simply repetitive images. But the images of Kṣitigarbha triad and Ten kings of Hell are bigger, various and complicated shape. Nevertheless, all these images being made by this difficult materials is a special case, which is worth studying in a group.

In these cases, the sculptor's name were known as Seungil(勝日) of Chungryongsa and Seungho(勝浩 or 勝湖) of Jangahnsa and Seoungjusa. Especially, the name Seungho is shown in other zeolite statues very often, but it had been regarded as his style is quite different with Heungcheonsa's style which looks very unique atmosphere of childlike. But recently, Seungho's early art work of Kṣitigarbha Bodhisattva was newly found in Namjijangsa temple in Daegu. It was made at the year of 1659 and more similar with Heungcheonsa image.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Seungho had made the Heungchunsa images is become higher. Furthermore we can dating Heungchunsa images more detail as Seungho's earlier works as 1650's.

The mudra of Kṣitigarbha Bodhisattva in Heungcheonsa is contrary compare with other cases. And it is same with the statue of Namjijangsa even it is little bit different as hold something in its right hand. But the long drooped finger is unique articulate of Heungcheonsa image.

Another characteristic of Heungcheonsa images is the fact that the three layers coat of

* Lecturer of Korea Univ. History of Buddhist Art. indijoo9@gmail.com

attendant King Mudok and Monk Domyung are carved with great care. In addition, the inclusion of various positions in the Ten Kings images can be pointed out as a feature. The pose of crossing hands, half lotus sitting posture, white beard etc. were appeared in Heungcheonsa's Ten Kings. In particular, we can read the intention of arranging these characteristic images in bisymmetry way of the both side of Kṣitigarbha triad.

In conclusion, the statues of judgment hall in Heungcheonsa show the very exemplary model of Naraka iconography in Joseon Dynasty by the meaning of various forms and bisymmetry arrangement.

